

## I. 상담실적

- 상담기간: 2024. 10. 10.(목) 07:00 ~ 22:00
- 상담건수<sup>1)</sup>: 882건

## II. 주요의견 내용

### ○ 방송 호평(5명)

-프로그램명 : 「생로병사의 비밀」 ‘제대로 맨발 걷기’

-방송일시 : 2024. 10. 9.(수) 1TV (21:40-22:30)

본인은 고령자이며,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다. 살기 위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각종 의료 정보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 ○ 우리말 사용 제언(5명)

-프로그램명 :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법이 어딴어? 법률매거진’

-방송일시 : 2024. 10. 10.(목) 1TV (10:00-11:05) (재)

이날 계속 ‘블랙컨슈머’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고령층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인데 굳이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단어의 뜻을 모르겠다. 공영방송이므로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언어 순화를 해주기 바란다.

## III. 청원현황

- 신규청원
  - 2건.
-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
  - 없음.

※ 참고: KBS홈페이지->시청자권익센터->시청자청원(<http://petitions.kbs.co.kr>)

---

1) 프로그램 별 인터넷 의견 건수는 집계에서 제외

#### IV. 일일 상담내용

##### 1. 상담실적 : 총 882건

###### ○ 형태별 분류

전화	인터넷	우편·FAX	방문	ARS <sup>2)</sup>	계
506	23	-	-	353	882

###### ○ 채널별 분류

1TV	2TV	라디오	DMB	인터넷	非채널	계
337	265	10	-	-	270	882

###### ○ 내용별 분류

의견제시	단순문의	기타	계
136	746	-	882

###### ○ 분야별 분류

방송	기술	경영	기타	계
551	5	200	126	882

시청자 의견	문 의
<p><b>【편 성】</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메소드 클럽」</li> <li>- 후속 방송 요청</li> </ul> <p><b>【스포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이 러브 스포츠」</li> <li>- 방송 제언</li> </ul> <p><b>【시사·교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로병사의 비밀」</li> <li>- 방송 호평</li> <li>○ 「무엇이든 물어보세요」</li> <li>- 우리말 사용 제언</li> </ul> <p><b>【연예·오락】</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슈퍼맨이 돌아왔다」</li> <li>- 진행자 제언</li> </ul> <p><b>【라디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t;지금 이 사람&gt; 저출생 위기 극복 특집</li> <li>-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우리의 이야기」</li> <li>- 방송 호평</li> <li>○ 「주현미의 러브레터」</li> <li>- 청취자 참여 제언</li> </ul>	<p><b>【방 송】</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TV 생생정보」</li> <li>- ‘유니짜장’ 연락처 문의 40건</li> <li>○ 「6시 내고향」</li> <li>- ‘반찬 가게’ 연락처 문의 17건</li> <li>○ 「저출생 위기대응 기획 6시 내고향」</li> <li>- ‘화천 쌀’ 연락처 문의 14건</li> <li>○ 「아침마당」</li> <li>- ‘방송 호평’ 14건</li> <li>○ 「동네 한 바퀴」</li> <li>- ‘참쌀떡’ 연락처 문의 10건</li> </ul> <p><b>【기 술】</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난시청」 문의 3건</li> <li>○ 「수신기술」 문의 1건 외 1건</li> </ul> <p><b>【경 영】</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문의 47건</li> <li>○ 「수신료」 문의 128건</li> <li>○ 「프로그램 구입」 문의 12건</li> <li>○ 「전화교환」 문의 5건</li> <li>○ 「주차」 문의 4건 외 4건</li> </ul> <p><b>【기 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전 문의사항 포함 126건</li> </ul>

2) ARS 항목 상세내용: 제보, 홈페이지문의, 프로그램 구매문의,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

## 2. 프로그램별 의견

의견	세부내용
[ 편 성 ]	
후속 방송 요청	<p>○ 「메소드 클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 8. 26.~2024. 9. 30. (월) 2TV 방송. (총 5부작)</li> <li>- 5부작으로 종영되어 너무 아쉬운 시청자이다. KBS에서 이런 식의 페이크 다큐멘터리를 더욱 많이 제작해 주었으면 좋겠다.</li> </ul> <p>※의견제시자 : 익명</p>
[ 스포츠 ]	
방송 제언	<p>○ 「아이 러브 스포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TV (월-목) (24:00-24:25)</li> <li>- 다양한 스포츠 종목 중 너무 야구 위주로 다뤄지는 것 같다. 국제무대에서 매번 패하는 국내 야구를 너무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다. 스포츠 종목들을 다양하게 다뤄주기 바란다.</li> </ul> <p>※의견제시자 : 익명</p>
[ 시사 · 교양 ]	
방송 호평	<p>○ 「생로병사의 비밀」 ‘제대로 맨발 걷기’(5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4. 10. 9.(수) 1TV (21:40-22:30)</li> <li>- 본인은 고령자이며, 유일하게 챙겨보는 프로그램이 「생로병사의 비밀」이다. 살기 위해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다. 각종 의료 정보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li> </ul> <p>※의견제시자 : 익명 외</p>

의견	세부내용
우리말 사용 제언	<p>○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법이 어딴어? 법률매거진’(5명)</p> <p>- 2024. 10. 10.(목) 1TV (10:00-11:05) (재)</p> <p>- 이날 계속 ‘블랙컨슈머’라는 단어가 사용됐다. 고령층 시청자들이 많이 시청하는 시간인데 굳이 영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단어의 뜻을 모르겠다. 공영방송이므로 가급적이면 우리말로 언어 순화를 해주기 바란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 외</p>
[ 연예 · 오락 ]	
진행자 제언	<p>○ 「슈퍼맨이 돌아왔다」</p> <p>- 2TV (일) (21:25-22:45)</p> <p>- 김준호 씨와 은우·정우 형제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 그런데 진행자들이 김준호 씨를 타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튜브만 봐도 본인처럼 생각하는 시청자들의 댓글이 많다. 시청자들은 아이들의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기 위해 시청하는 것인데, 진행자들이 말이 너무 많고 특히 김준호 아빠를 타박할 때는 보기 불편하다. 가족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고 싶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 라디오 ]	
방송 호평	<p>○ 「&lt;지금 이 사람&gt; 저출생 위기 극복 특집 -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우리의 이야기」</p> <p>- 2024. 10. 10.(목) 1R (15:30-15:58)</p> <p>- 평소 즐겨 듣는 방송이다. 임수민 아나운서의 진행도 좋다. 해당 방송에 출연했던 변호사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싶고, 또 방송에서 소개되었던 책도 구매해서 읽어보겠다.</p>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

의견	세부내용
청취자 참여 제언	<p>○ 「주현미의 러브레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R (월-일) (09:00-11:00)</li> <li>- 라디오 주파수를 KBS에 고정해놓고 항상 청취하는 애청자이다. 해당 방송에 사연을 보내고 당첨이 되었는데, 게시판 작성을 통해서만 선물을 받을 수 있어 복잡하게 느껴진다. 타 프로그램의 경우 문자메시지가 오면 선물 받을 주소를 넣을 수 있게 되어있다. 게시판 작성이 어려운 청취자들을 위해 절차가 개선되었으면 한다.</li> </ul> <p style="text-align: right;">※의견제시자 : 익명</p>